

# “사람이 언제 죽는가 잊혀졌을 때”...윤두준, ‘원피스’ 인용

## 하이라이트, 5년 만에 첫 정규 ‘데이드림’ 비스트 멤버로 2017년 재데뷔한 4인조 팀

“사람이 언제 죽는다고 생각하나? (...) 사람들이에게서 잊혀졌을 때다.” 일본 만화가 오다 에이치로의 ‘원피스’ 속 Dr. 히루루키는 이렇게 말했다. 그룹 ‘하이라이트’ 리더 윤두준은 이 명대사를 인용하며 “하이라이트의 목표는 잊혀지지 않는 것, 저희 팬들뿐만 아니라 K팝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께 존재감을 내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이라이트가 21일 오후 6시 첫 번째 정규 앨범 ‘데이드림(DAYDREAM)’을 발표했다. 기존 비스트 멤버들이 재데뷔한 뒤 5년 만에 선보이는 첫 정규앨범이다. 하이라이트 멤버들은 2009년 6인 그룹 ‘비스트’로 데뷔했다. 비스트 시절 대표곡 ‘픽션’이 KBS 2TV

‘가요대축제’에서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2011년 최고의 노래’로 선정되는 등 2세대 대표 아이돌 그룹 중 한 팀이다. 이 팀은 전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에서 나오면서 2017년 재편, 5인 ‘하이라이트’가 됐다. 2019년 3월 용준형이 자퇴하면서 윤두준, 양요섭, 이기광, 손동운 등 4인조가 됐다. 이번 앨범은 이런 과정을 거친 4인조 하이라이트가 처음 발매하는 정규인 것이다. 비스트라는 팀명은 K팝 역사 뒤편길로 사라졌지만 멤버들은 부침이 심한 K팝 업계에서 13년 동안 버텨오고 있다. 윤두준은 이날 앨범 발매 전 “하이라이트는 죽지 않고 여러번 기억에 남아 오래오래

활동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곡 ‘데이드림(DAYDREAM)’은 서정적인 보컬과 섬세하게 조율된 편곡이 돋보이는 미디엄 팝 댄스곡이다. 네가 없는 세상에서는 살아가고 싶지 않은 화자의 절절한 사랑 고백을 담았다. 자발적으로 영원한 백일몽에서 깨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다. 앨범에는 ‘데이드림’ 외에도 이기광의 자작곡 ‘밤안개(Night Fog)’, 손동운의 자작곡 ‘시선(Our Eyes)’ 등 총 10곡이 실렸다. 손동운은 “이번 앨범이 길몽이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양요섭도 “하이라이트를 떠올리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반응이 나왔으면 좋겠다”며 긍정성을 강조했다. 이어 양요섭은 “올해 더 바쁘게 사는 것이 목표예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 많은 분들과 함께 오프라인으로 만나고 싶고, 꼭 콘서트도 열고 싶다”고 했다. 멤버들은 무엇보다 ‘하이라이트스럽다’ 같



은 자신들다운 이미지를 간직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기광은 “우리 음악을 들으면서, 좋았던 순간과 행복했던 감정들을 떠올렸으면 해요”라고 덧붙였다.

## 고현정, 마지막 유목민 만난다...12년만 다큐 내레이션

### 오는 25일, SBS 스페셜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

배우 고현정이 다큐 내레이터로 나선다. 고현정은 25일 오후 10시 첫 방송하는 SBS 스페셜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 내레이션을 맡는다. 1부 ‘툰드라의 상속자들’ 편으로 꾸민다. 26일 2부 ‘흔들리는 툰드라’, 다음 달 1~2월 3부 ‘툰드라의 경교’, 4부 ‘툰드라 10년의 기록’ 편을 각각 내보낸다. 2010년 선보인 ‘최후의 툰드라’ 후속작이다. 당시에도 고현정이 내레이션을 맡았다. 고현

정은 “12년 전에도 내레이션을 하며 감명 받았던 작품에 다시 참여할 기회를 줘서 감사하다”며 “광활하고 아름다운 툰드라 풍경과 풀라 형제들을 10년 만에 영상으로 다시 만나 반갑고 방송이 기대된다”고 했다. 최후의 툰드라는 시베리아 북서쪽 야말반도에 사는 지구상 마지막 순록 유목민 네네츠인을 국내 최초로 담은 다큐다. 가디언즈 오브 툰드라는 코로나19 어려움을 뚫고 촬영했다. 12



년 만에 다시 만난 네네츠 아이들의 성장과 지구난화로 변한 툰드라 모습을 담았다.

## “김태리 로맨스 통했다”...넷플릭스 8위 ‘스물다섯스물하나’ 국내 드라마 유일

김태리·남주혁 주연 ‘스물다섯 스물하나’ 인기가 심상치 않다. 22일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 패드론에 따르면, tvN 주말극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전날 세계 넷플릭스 TV쇼 부문 8위에 올랐다. 톱10 중 국내 작품은 이 드라마가 유일하다. 국내를 비롯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몰디브, 오만,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스리랑카, 베트남 등 총 11개국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일본에서는 3위를 기록했다. 전날 일본 넷플릭스 TV쇼 부문에서 스물다섯 스물하나를 포함해 한국드라마 8편이 톱10에 들었다. 1위는 박민영 주연 JTBC 주말극 ‘JTBC 주말극 ‘기상청 사람들 : 사내연애 잔혹사 편’이다. 4위는 손예진 주연 JTBC 수목극 ‘서른아홉’, 5위는 임성찬 작가의 TV조선 주말극 ‘결혼작사 이혼작곡’이 랭크됐다. 7~10위는 SBS TV 월화극 ‘사내맞선’, 넷플릭스 드라마 ‘소년심판’, tvN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2019~2020), ‘방법’(2020) 순이다. 스물다섯 스물하나 1998년 시대에 꿈을 빼앗긴 청춘들의 방향과 성장을 그리고 있다.



스물물과 열여덟에 처음으로 서로 이름을 불러줬던 ‘나희도’(김태리)와 ‘백이진’(남주혁)은 스물다섯 스물하나가 돼 사랑한다. 시청률 10%를 넘어서 인기몰이 중이다.

## ‘우리들의 블루스’ 고두심·기소유, 나이 초월 어색한 동거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제주 할머니 고두심과 육지 소녀 기소유의 어색한 동거가 펼쳐진다.

### tvN 다음달 9일 첫 방송

22일 ‘우리들의 블루스’제작진 측은 세대 초월 짝궁 케미를 보여줄 제주 할머니 할머니 고두심(현춘희 역)과 6살 소녀 기소유(손은기 역)의 ‘에피소드 티저’를 공개했다. 영상은 고두심이 어느 날 갑자기 소녀 기소유를 떠맡게 되면서 시작된다. 2주 뒤 다시 데려가겠다는 며느리의 부탁에, 고두심은 소녀와 어색한 동거를 하게 된다. 낯을 가리는 소녀에게 장난도 걸고 맛있는 음식도 해줬지만, 소녀는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 생선 반찬 투정을 시작으로, ‘할머니 미워’를 외치며 길바닥에 주저앉아 때를 쓰는 기소유의 모습이 이어진다. 소녀 기소유 입장에서는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을 떠나 제주 할머니 집에 떨거진 상황이다. 할머니가 해녀 일을 하러 간 사이, 기소유는 동네 삼촌(제주 방언, 이웃 주민을 친근하게 부르는 호칭)인, 이병헌(이동석 역), 김우빈(박정준 역), 박지환(정인권 역), 최영준(방호식 역)과 함께 놀면서 제주 생활에 점점 적응해간다. 고두심과 기소유는 나이를 초월한 ‘짝궁 케미’로, 따뜻한 감성의 이야기를 예고했다. 고두심은 실제 손녀처럼 아역 배우 기소유를 챙기고 살피며 ‘찐 케미’를 만들었다. 특히 ‘우리들의 블루스’ 최연소 주인공 막내 기소유는 현장에서도 배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는 후문. 명불허전 고두심의 명품 연기, 어른들을 놀라게 한 깜찍한 연기의 소유자 기소유의 케미에 기대감이 더해진다. 한편, 내달 9일 첫 방송되는 tvN 새 토일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는 따뜻하고 생동감 넘치는 제주, 차고 거친 바다를 배경으로 다양한 인물들의 각양각색 인생 이야기를 그린 옴니버스 드라마로, 노회경 작가, 김규태 감독이 의기투합했다.

## ‘상습 원정도박’ 슈, 4년만 방송 복귀...‘마이웨이’ 촬영중

### TV조선 ‘스타다큐 마이웨이’ 방송일, 미정

‘상습 원정 도박’으로 물의를 빚은 그룹 ‘S.E.S.’ 출신 슈(41·유수영)가 4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다. 22일 TV조선 측은 “슈가 ‘스타다큐 마이웨이’를 촬영 중이다. 방송일은 미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슈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5월까지 마카오 등 해외 도박장에서 수차례에 걸쳐 7억9000만 원대 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 2019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건물주인 슈의 채무로 인해 건물 세입자의 임대차 보증금이 가압류당하는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 1월 슈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자필 편지를 올리고 사과했다. 그는 “2018년 후반, 지인의 꼬임에 빠져 처

음으로 시작했던 도박이 점차 규모가 커졌고,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도박에 몰두하게 됐다. 이로 인해 저는 십수년간의 연예인 생활로 모아왔던 제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아 폐가망신 수준에 이르게 됐다”고 고개를 숙였다. “채권자들에게 최선을 다하여 빚을 갚아왔다. 이를 위해 반찬 가게에서도 일해보고, 동대문시장에서 옷을 판매해 보기도 하고, 지인의 식당에서 일하면서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슈는 1997년 1세대 걸그룹 S.E.S로 데뷔, 한 시대를 풍미했다. 프로 농구 선수 출신 임효성과 결혼 후 쌍둥이 라울·라희와 함께 SBS TV 육아 예능 ‘오 마이 베이비’에 출연해 친근한 이미지도 얻었다. 하지만 도박 파문 이후 팬들이 다수 떠났다.



## 양동근·이엘·송재림·박진영, 영화 ‘야차’

### 다음달 8일 넷플릭스 공개

배우 양동근, 이엘, 송재림 그리고 박진영이 뭉쳤다. 22일 넷플릭스 오리지널 영화 ‘야차’ 제작진이 블랙티م 요원들의 스틸을 공개했다. 공개된 스틸에선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블랙티م 팀원들의 모습이 포착됐다. 먼저 양동근은 베테랑 요원 ‘홍과장’으로 분했다. 국정원 선양 지부의 위장 사무소인 여행사의 과장으로, 탁월한 일처리로 블랙티م의 실무를 전담한다. 양동근은 푸근한 아저씨 같은 홍과장 캐릭터를 위해 체중을 증량했고 조선족 말투와 중국어를 습득했다. 이엘은 블랙티م의 가장 오래된 선임 요원이자 통신망 교란과 감정을 맡고 있는 ‘희원’ 역

을 맡았다. 액션 장르 영화에 처음 출연한 이엘은 강도 높은 총기 액션을 소화하기 위해 체력을 기르고 몸을 만드는 노력을 했다. 송재림은 운전 실력과 사격, 무술 등 몸으로 하는 건 모두 뛰어난 행동과 요원 ‘재규’를 연기한다. 그는 장발과 긴 수염, 강한 부산 사투리를 통해 재규를 표현한다. 실탄 총격, 와이어 액션, 과격한 몸싸움을 예고했다. 먼저 양동근은 베테랑 요원 ‘홍과장’으로 분했다. 국정원 선양 지부의 위장 사무소인 여행사의 과장으로, 탁월한 일처리로 블랙티م의 실무를 전담한다. 양동근은 푸근한 아저씨 같은 홍과장 캐릭터를 위해 체중을 증량했고 조선족 말투와 중국어를 습득했다. 이엘은 블랙티م의 가장 오래된 선임 요원이자 통신망 교란과 감정을 맡고 있는 ‘희원’ 역